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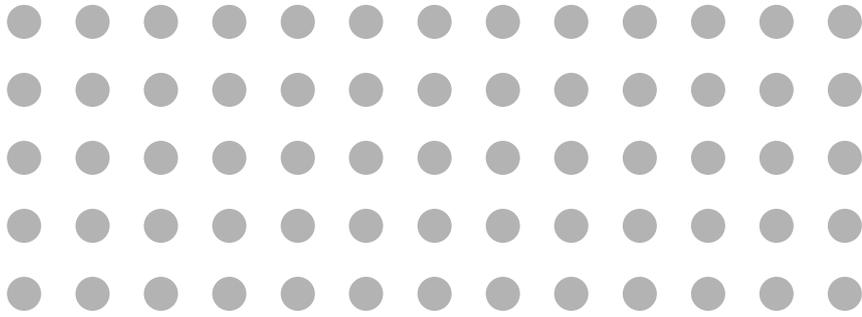
하이테크와 1000가지 빛깔의 만남

저작권법 개정, 소리바다 유료화, 다양한 유료 음악 서비스의 등장 등 디지털콘텐츠의 유료화 바람은 이제 피할 수 없는 대세다. 국내 시장에서야 편케익, 멜론 등이 이제 태동하는 양상이지만 이미 해외에서는 수많은 음원 다운로드, 또는 재생 서비스가 확고히 자리 잡았다. 거원시스템의 아이오디오5는 자그마치 1,000가지에 이르는 화려한 LCD 컬러에 감각적인 디자인, 그리고 멜론과의 우수한 연동성을 장점으로 선보인 야심작이다. 물론 거원 고유의 우수한 음질도 고스란히 물려받고 있다.

글_천신웅 <ZD넷 코리아> 기자

MP3 Player





아이오디오4 출시 11개월 만에 업그레이드된 거원 아이오디오5는 명품으로 손꼽혔던 아이오디오4와 그 형태나 디자인 컨셉이 유사하다. 아이오디오4가 출시됐을 때도 독특한 액정과 현란한 백라이트로 시선을 모았던 것처럼, 이번 아이오디오5 역시 이러한 아이오디오4의 컨셉을 그대로 이어받아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대형 LCD, 현란한 백라이트 등을 지원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시원스러운 액정과 세분화된 1,000가지 색상의 백라이트 액정이 돋보인다. 그리고 블루, 레드, 그린 등 빛의 3원색으로 총 10단계 조절이 가능한 점도 두드러진다. 그리고 초창기 많은 버그로 불만을 샀던 전작과 달리 이번에는 버그를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성도가 높다.

SK의 월정액 음악 서비스인 멜론을 지원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특징이다. '세계최초의 유비쿼터스 음악 다운로드 서비스'를 내세우는 멜론은 월 3,000원(스트리밍) 또는 5,000원(다운로드)의 사용료를 내면 실시간으로 음악을 듣거나 다운로드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다. MP3 음악을 전용 포맷인 DCF로 바꾸어 손쉽게 MP3 플레이어나 휴대폰, PC 등에서 재생할 수 있도록 해준다.

현재는 아이오디오5만 멜론과 연동되지만, 곧 아이오디오 G3 등도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해 이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한다. 조만간 각 음원 서비스와 MP3 플레이어가 연계된 마케팅이 대세를 이룰 것으로 기대된다.

매끈(?) 투명한 아크릴 커버

상하로 길쭉한 아이오디오5를 초소형으로 분류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초경량이라고 할 만하다. 배터리 제외 28g 정도로 목에 걸고 다니기에 불편함이 없다. LCD가 빠진 애플의 아이팟 셔플과 비견되는 무게다. 256MB, 512MB 제품은 루비 레드, 아쿠아 블루 색상 가운데 고를 수 있으며, 1GB 제품은 노블 블랙 색상을 가지지만 있다.

아이오디오5의 디자인 특징은 전면과 상단부를 감싸고 있는 투명한 백색의 아크릴 덮개다. 순백의 아크릴 커버가 중앙을 둘러싸고 있다. 그밖에 대형 액정 디스플레이, 3웨이 방식의 조그 버튼, 그리고 완벽한 도장 마무리가 돋보인다. 기존 MP3 플레이어에서 곤잘 발생했던 칠 벗겨짐 현상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듯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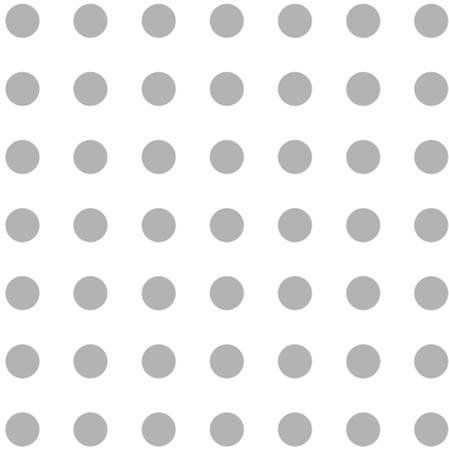
구성품으로는 자세하게 정리된 설명서와 번들 프로그램인 제트오디오가 포함된 CD, 이어폰과 라인인 케이블, 미니 USB 커넥터, USB 케이블, 캐링 케이스와 목걸이줄, AAA 배터리 1개와 액정의 기스를 방지해주는 보호 필름 2개가 제공된다. 크레신 도끼 이어폰은 순백색의 케이블로 아이오디오5의 백색 아크릴과 잘 어울린다.

아울러 SK텔레콤의 멜론 상품권이 제공된다. 제공되는 상품권을 이용하면 등록 후 1개월간 무료로 무제한 음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AAA 배터리 1개로 20시간 사용

10여종이 넘는 시리즈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원시스템의 아이오디오 제품은 성능이나 기능면에서 흠잡을 데 없이 우수하다. 구간반복, 일정구간 앞뒤로 되감기 기능, 리쥬 기능 등의 여화 기능과 전 세계의 언어를 지원하며, FM 라디오 예약녹음, 시계 등의 기능도 유용하다. 또한 기기 자체적으





로 전세계 4만여 자 이상의 상용폰트를 탑재해 미려한 디스플레이를 배려했다.

AAA 배터리 1개를 사용하는 아이오디오5는 사용 시간이 무려 20시간에 이른다. G3의 50시간 재생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작은 AAA 배터리 하나만으로 이 정도 재생 시간을 구현했다는 것은 칭찬할 만하다.

또한 그래픽 방식이 아닌 세그먼트와 그래픽 방식이 혼합된 형태의 액정 디스플레이를 이용해 다른 제품들과 비교해 백라이트를 사용하더라도 오랜 시간동안 사용할 수 있는 편이다.

대형 와이드 디스플레이 만족

가로로 넓직한 128×64 크기의 LCD는 일반적인 MP3 플레이어의 액정에 비해 2배 이상 크다. 곡 정보가 자세하게 표시됨은 물론 재생하면서도 재생 정보가 표시되면서 파일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가사를 함께 볼 때는 4줄까지 보인다. 커다란 액정에 시계를 보면서 재생 정보를 확인하는 것도 가능하다.

특히 1,000가지의 화려한 백라이트를 각 모드별로 다르게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음악에 맞춰 다양한 색상으로 발광하도록 할 수도 있다. 1,000가지 색상이 화려하게 달라지는 모습은 펍 불만한 풍경이다.

하지만 곡 검색 시 파일 목록을 보다 많이 볼 수 있도록 가로가 아닌 세로로도 디스플레이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가로로만 표기하다 보니 큰 크기에도 불구하고 곡 제목을 3개밖에 볼 수 없다.



고유의 탁월한 음질은 그대로

아이오디오 고유의 뛰어난 음감과 음질은 여전하다. 미국 BBE 사운드의 정교하고 섬세한 최강음장을 탑재하고 튜닝했으며, 5밴드 EQ, BBE, Mach3Bass, MP Enhance, 3D Surround, Pan 등의 6가지 음장효과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다. 모두 합해 1조 2천억 가지의 설정이 가능하니 음질에 민감한 사용자일수록 만족도가 높아진다.

독자적인 기기로서의 성능이나 기능만으로 승부하는 시기가 지났다는 느낌이 들었다면 과장일까? 녹음, FM 라디오, 여각 기능 등만으로는 '튀기' 힘든 게 MP3 플레이어 시장이다. 아이오디오5는 탁월한 음질과 기능을 기본으로 '보는 즐거움'과 '음악 서비스 연동성'을 구현해냈다. 아이팟이 미국 시장에서 아이튠즈 서비스와 맞물려 훌륭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한 것처럼 아이오디오5도 국내 디지털 콘텐츠 시장의 조연 역할을 톡톡히 해낼 만한 제품이다. ●